

우리 군 개혁의 참고모델, “이스라엘 군”

권태영*

요 약

우리 군은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편성·운영 중에 있다. 차체에 이 글은 군 개혁의 참고모델로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제시하여 군 개혁과업을 추진하는데 다소라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스라엘은 지난 50년간 ‘자주국방’의 정신으로 군사력을 꾸준히 발전시켜서 오늘날 전세계에서 작지만 가장 당찬 정예화군·기술군·과학군을 창조했다. 한국도 지난 50년간 ‘자주국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끝에 이제 외형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큰 군대가 되었다. 그러나, 양국이 지난 50년간 노력하여 만들어 낸 현재의 최종 산출물, 즉 전력수준과 군사태세는 양국이 지닌 저마다의 불가피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지만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이스라엘 군이 우리 군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작은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비교 우위의 군사력과 군사태세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곧 우리 군을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참고해야 될 주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이스라엘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건국과정을 살펴본 다음, 이스라엘 군의 특징 및 우수성을 분석하고, 우리 군이 개혁과업을 추진해 나갈 경우 참고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개념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한국은 지금 '국가 부도사태'에 비견되는 경제위기에 처해 있다. 대외 부채가 무려 1500~2000억불이나 되고 우리 기업의 총체적인 빚이 1,0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하여 우리 경제는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수혈받고 경제운용도 IMF가 정해 놓은 거시경제지표하에서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요약하건대, 주식회사 '한국'이 세계 주식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제 우리 군은 이와 같이 어려운 나라형편을 맞이하여 '어떤 자세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 나가야 할 것인가? 군은 사회와 독립, 유리되어 있는 '섬'이 아니다. 군은 사회와 더불어 숨을 쉬고 사회와 더불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군인은 군복을 입은 하나의 시민이고, 시민은 국가위기기 누구든지 군복을 입을 수 있는 군인이다. 따라서 사회와 군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사회의 아픔과 고통은 그대로 군에 반영된다. 사회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구조를 변혁하고 생활의식도 대전환하게 된다면 군도 변화하는 사회의 큰 파고를 타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여 행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기업은 외형규모가 아닌 순수익을 잣대로 하여 일체의 '거품'과 '낭비'요소를 제거하고자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며, 가게는 '고개숙인 아버지'의 큰 시름 속에서 매우 인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알뜰·내핍생활을 하는데 우리 군만이 기존의 '틀' 속에서 안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인해 우리 군은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편성·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국방개혁의 당위성과 그 중요성은 이미 논

의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문제는 개혁의 '방법', '어떻게'를 찾는 데 있는 것이다. 차제에 이 글은 군 개혁의 참고 모델로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제시하여 현재 고민중인 '어떻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소라도 기여하고자 한다. 먼저 이스라엘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건국과정을 살펴 본 다음, 이스라엘군의 특징 및 우수성을 분석하고, 우리 군이 개혁시 참고해야 될 몇 가지 주요 시사점을 개념적인 차원에서 밝혀 보고자 한다.

I. 이스라엘의 안보환경 및 건국과정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이 약 2000년 동안 나라없이 온갖 학대와 치욕을 당하면서 방랑 생활을 하다가 1948년 5월 14일 건국한 신생 독립국가이다. 유대민족은 기원전 63년 로마에 의해 정복당한 이후, AD 70년 로마 황제 티투스(Titus)에 의해 추출되면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국 등으로 떠도는 '디아스포라'(diaspora: 流浪民)가 되었고, 그 땅(Palestine)에는 아랍인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선민(選民)의식을 지니고 언젠가는 메시아(Messiah)가 나타나서 약속의 땅인 시온(Zion)에 다시 유대국가를 건설하게 될 것으로 굳게 믿어 왔다.¹⁾ 그러던 중 마침내 19세기 후반부터 동유럽 거주 유대인들 사이에 민족주의운동이 출현되었다. 한 오스트리아 신문사의 파리 특파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헤르츨(Theodor Herzl)이 '유대국가'라는 책자를 발간한 것이 촉매가 되었다. 그는 당시 제국주의 열풍이 유럽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유대인들이 그 희생물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유대국가의 건설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활로라고 주장하였

다. 그의 이러한 정신은 1897년 8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제1차 시온주의자 회의에서 전체 유대인들의 정신적 모토로 받아들였다. 유대인들은 이 회의에서 자신들의 조국을 팔레스타인에 건설한다는 '바젤계획'을 채택하였다.²⁾

유대인들의 이러한 민족적 소망과 결의는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영국이 전략적 차원(오스만제국의 붕괴와 전쟁에서의 승리)에서 아랍민족과 유대민족을 각기 활용하고자 상호 배치되는 이중적 약속을 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봉착하게 되었다. 영국은 당시 주카이로 고등관무원인 맥마흔(Henry Macmahon)을 통해 전시오교정책의 내용이 담긴 서한을 맥카의 태수였던 후세인(Husseini)에게 1915. 1월~1916. 3월간 10차례에 걸쳐 보냈는데(맥마흔-후세인 서한), 그 내용은 주로 아랍인의 참전 대가로 전쟁이 종결되면 후세인이 요구하는 아랍의 독립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었다. 이런 맥마흔 서한의 약속을 믿고 아랍인들은 오스만터어기에 반기를 들고 영국편에서 전쟁을 수행하였다. 영국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또 다른 약속을 유대인들에게도 하였다. 영국은 재미 유대인을 통해 미국의 대독일 전쟁 참여를 유도하고 유대인 재벌들의 재정지원을 획득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민족국가를 팔레스타인지역에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하였다(1917. 11월 영국 외상 Balfour가 영국 국적 유대인 금융가 Rothschild에게 보낸 서한: '발포어 선언문'). 그러나 영국은 1차 세계대전 종결 후 이와 같은 약속을 모두 저버리고 팔레스타인지역을 자신의 위임통치권에 편입시켜 버렸다.

유대인들은 영국의 약속 위반으로 민족국가 건설의 꿈이 사라졌으나, 영국이 팔레스타인지역을 위임

통치하는 동안 유럽에서 이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게 되었고, 19세기 말 러시아 및 폴란드에서의 반유대인운동(Pogrom)과 나찌(NAZI) 독일의 대학살(Holocaust) 등은 유대인들의 이주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유대인들의 이주 증가는 필연적으로 아랍인들의 민족주의 감정과 반유대인운동(anti-semitism) 및 반영국 운동을 촉발시키게 되었고, 이 때부터 조직적인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다. 이에 영국은 아랍인들의 반영국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아랍인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유대인들의 이주를 더 강력하게 규제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미 준군사적 단체인 이르건(Irgun)과 하가나(Haganah)를 조직하여 반영국 테러를 벌이면서 유대인 국가의 수립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처럼 복잡하게 진행되자 영국은 1947년 4월 유엔사무총장에게 팔레스타인문제에 관한 특별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유엔특별총회는 11개 국가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UN Special on Palestine; UNSCOP)를 설치하였으며, 위원회는 1947년 8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아랍인과 유대인 지구로 분할하는 다수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랍인과 유대인을 포괄하는 연방국가를 만든다는 소수안이었다. 마침내 1947년 11월 29일 제2차 유엔총회에서 표결 끝에 다수안이 채택되었다. 아랍인들로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따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독립국가의 건설을 위해

필사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유대인들은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 벤구리온(David Bengurion)을 수상으로 하여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동년 5월 26일에는 유대인 지하 군사조직 중 규모가 가장 큰 하가나(haganah)를 토대로 이스라엘 군이 창설되고, 초대 총참모총장에 야딘(Yihal Yadin)장군이 임명되었다.³⁾ 이로써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 팔레스타인지역에서 축출된 지 1800여년만에 옛 조국을 다시 창건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온갖 박해와 대학살의 쓰라린 상처와 국제질서의 냉엄한 전개를 교훈삼아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최후의 방책이었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생존권의 확보만큼은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절명의 가치라고 인식하고 있다.

II. 이스라엘군의 특징 및 우수성 분석

이스라엘은 거대한 '아랍해'로 둘러싸인 작은 섬에 비유되는 조그만 국가로서, 한국처럼 지정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생존환경 속에 있다. 북쪽으로는 레바논, 북동쪽으로는 시리아, 동남쪽으로는 요르단, 남쪽으로는 이집트로 포위되고 있어 언제나 생존이 불안한 인구 570만(아랍 5국의 약 1/20), 국토 약 2만 km²의 매우 작은 나라이다. 이스라엘은, ① 인구의 숫적 절대 열세와 이로 인한 전투손실에 대한 과민성, ② 매우 협소한 작전지역(레바논, 골란고원, 요르단 계곡, 시나이반도까지 합쳐도 4.5만km²에 불과)과 대단히 짧은 작전중심(5분 이내 수도 기습 가능), ③ 아랍국가들로 포위된 다방면의 전선, ④ 가용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작전에 한

번 실패하면 국가존립 자체가 순식간에 위태롭게 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고유의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군사력을 건설, 유지 및 운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 이스라엘이 발전시킨 이스라엘군의 주요 특징 및 우수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스라엘은 '스위스'의 국방태세를 모델로 삼아 민·군 동체 개념(The society and the army are one)의 '시민군'을 발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동원체제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의 경우 군에서의 근무는 국가사회생활의 중요한 일부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이스라엘 국민은 고등학교 졸업 후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하여야 한다.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간 복무하며, 51세까지(미혼여성 24세) 예비역으로 군에 종사하여야 한다.⁴⁾ 오늘날 이스라엘군의 총 병력은 60.4만 명이다. 이 현역은 17.7만 명, 예비군은 42.7만 명이다. 예비군이 이스라엘 군(IDF)의 주역을 맡고 있다.

이스라엘의 시민 모두는 야딘(Yigal Yadin)장군이 주창한 '시민생활을 하는 현역', '귀가해 있는 현역' 개념에 따라 국방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은 병사의 문화·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군은 교육 배경이 미흡한 병사들에게 훌륭한 교육기관이 되며, 새로 이민해 온 병사들에게는 히브리어를 배우고 사회에 동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병들 모두에게 레크레이션 활동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사회 구성원들을 동질화시키고 시민정신을 일체화하여 국방은 물론 경제와 사회 및 일상생활의 기본체계를 확립시키는 구심적 존재가 되고 있다.

둘째, 이스라엘은 풍전동화의 다급한 위기가 계속 발생되는 안보상황 속에서도 '자주국방'(self-reliance)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왔다.⁵⁾ 아랍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거부하였다. 설상가상 격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왔던 서방국가들마저도 아랍권(석유)을 의식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및 지원을 기피·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런 안보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주적 생존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동맹관계는 독자적인 행동의 자유스러운 선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의 효과성도 도모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국이 매우 작은 소국이기 때문에 강력한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즉,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안보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시도하였고, 무기획득을 위해 서구 특히 프랑스와 협력관계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한 경우에도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였고, 어떤 상황에서도 타국이 직접 이스라엘 땅에 파병하여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동맹보다 '행동의 자유' 확보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① 이스라엘은 인구가 적고, 국토가 협소하며, 중심이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3면이 아랍국가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② 내선상의 위치에서 단기 속결전쟁을 수행(quick wars)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③ 단기 속진속결을 위해서는 공격작전을 선택하여야 된다. 공격전술은 이스라엘이 주변의 아랍국가들과 수 개 정면에서 동시적으로 대적하게 되는 가장 불행한 시나리오를 배제

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인 것이다. ④ 기습공격만이 행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데, 만일 이스라엘 군이 동맹체제하에 놓이게 되면 상황 적시적인 신속한 작전행동이 불가능하고 외세에 간섭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자주국방을 구현하기 위하여 무기조달의 국산 자급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스라엘의 건군 초기에는 방위산업 능력이 매우 빈약하였다. 처음에는 체코 등에서 무기를 구입하였고, 그 후 프랑스에서 무기를 지원받았다. 그 당시 프랑스는 이집트의 수에즈운하 점령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원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기습공격으로 6일전쟁을 도발하자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단행하였다.⁶⁾ 이스라엘은 이를 계기로 자체 무기개발·생산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예컨대 Kfir전투기는 1967년 프랑스의 무기금수조치를 계기로 자체 노력으로 개발되었고, Merkava전차는 1969년 영국과의 Chieftan 전차 공동개발이 아랍권의 반발로 취소되자 독자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리고 Saar미사일정은 1960년대에 해군 초계정 구입이 곤란하게 되어 국산화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은 온갖 국제적 압력의 가중에도 불구하고 <표1>과 같이 전략무기를 자체 개발·확보함으로써, 주변 아랍국들보다 한 차원 높은 군사태세를 발전시킬 수 있었고, 전략적 균형에 있어서도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비교우위의 과학진 능력을 확보하여 아랍국가들의 전쟁도발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랍국가들과의 전력 격차도 더욱 넓혀 놓을 수 있게 되었

<표1> 이스라엘의 전략적 차원의 무기 발전 현황

- ① NPT 가입 계속 거부, 비밀리에 핵 개발 추진. 현재 약 1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1950년대에 핵 개발 착수)
- ② 핵탄두 투발 운반 수단 개발 보유: Jericho- I SSM(사정거리 500km), Jericho- II SSM(1987~89년 시험발사, 1000Kg, 2,800km)
- ③ 군사첩보용 인공위성 OFEQ-3(36Kg, 수명 3년, 바그다드시의 자동차 번호판 식별 가능) 발사에 성공(1995년)
- ④ 무인비행체(UAV) 개발 실용화: IAI scout(다목적용, 고도 4,600km, 작전반경 100km, 7시간 비행), IAI searcher(5,000km, 14시간) 등
- ⑤ 주변 아랍국의 전략무기를 저지·거부할 수 있는 방책 강구: 1981년 이라크 핵시설(Osirak)을 장거리 정밀유도 폭격으로 파괴하였고, 현재는 ARROW미사일 요격체계를 성공적으로 개발 시험중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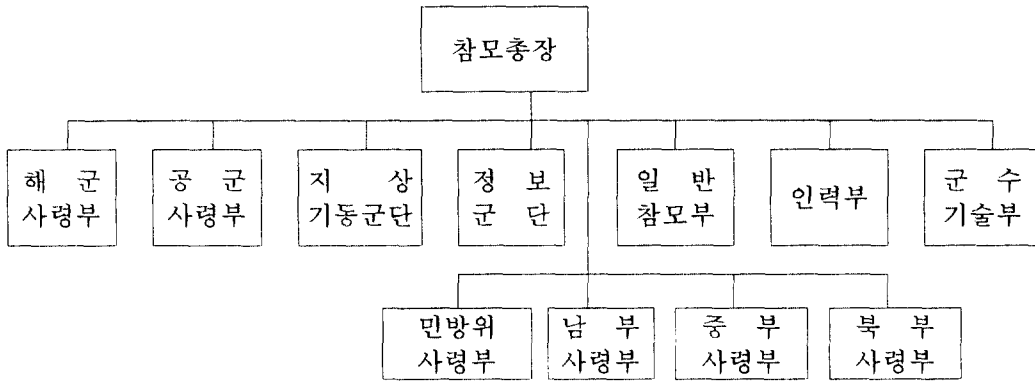
넷째, 이스라엘에 적합한 '신전격전'교리를 개발 및 채택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토가 협소하고 중심이 매우 부족하므로 단 1회의 작전실패도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① 적의 침략기도 및 활동을 최대한 조기에 파악하여, ② 선제적 기습공격으로 주도권(initiative)을 장악하며, ③ 적지를 주전장으로한 영토박에서 싸움이 불가피하고, ④ 최단기간내에 결정적인 승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는 주변 1국과의 전쟁을 조속히 종결함으로써 2개 이상의 정면에서 동시에 전투를 수행하게 되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⁷⁾

6일전쟁은 이스라엘이 '신 전격전'교리를 적용한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사상 초유의 최단기(6일) 속전속결에 의한 결정적

승리를 성취하였다. 이집트(시나이)와 3일간, 요르단과 2일간, 그리고 시리아와 2일간 축차적으로 연속 기습작전을 수행하여 6일만에 완승을 거두었다. 이런 전쟁의 성과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생존능력을 확신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세계적 전략가인 앙드레 보프르(Andrew Beaufre)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전과를 '완전한 승리, 거의 기적적인 성과'라고 극찬한 바 있다.⁸⁾ 6일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체계화된 전격전'(a systematic lightning war)을 수행한 데 있었다. 이스라엘은 ① 탁월한 정보능력, ② 우월한 공군력, ③ 정예의 기갑력, ④ 신속한 동원능력을 신비롭게 조화·결합시키고, 질적으로 매우 우월한 군사능력을 신기에 가깝도록 잘 운용하여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전투발휘 효과를 창출하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다얀(Dyan)장군은 <표2>에서와 같이 '속도'중심의 작전운용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과감하게 실천에 옮겼던 것이다.⁹⁾

<표2>다얀(Dyan)장군의작전운용개념

- ① 일단 공격이 개시되면 추가적인 보급에 의존하지 않고 최대한 조기에 목표에 도달한다.
- ② 이집트군에 의해 병참선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격을 가속화한다.
- ③ 한 부대가 고전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부대의 전진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④ 우선 공수작전을 시도하고, 그 다음 우회기동을 하며, 그것이 곤란할 경우 부득이 돌파를 실시한다.
- ⑤ 부대별로 목표를 부여함으로써 개개 부대의 전진이 다른 부대의 전진과 관계없도록 조치한다.



<그림1> 이스라엘군의 조직편성도

다섯째, 이스라엘은 자국이 처해 있는 전략적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군사교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군사조직을 편성하였다. ① 자유민주주의국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통합군체제'를 채택하였다. ② '시민군'개념의 '급속 동원체제'를 완벽하게 확립하였으며, ③ '정보'를 매우 중시해서 제4군 개념(지·해·공과 같은 위상)으로 발전시켰다.¹⁰⁾ 그리고 ④ 일반 참모부 중 '기획처'에서 모든 기획과 계획을 '통합적'으로 조정, 통제하되, ⑤ '하급부대'에 권한과 책임을 대폭적으로 '위·분임'하여 현장에서의 상황적 '융통성'을 보장하고,¹¹⁾ ⑥ '젊은' 장교단의 진두지휘로 창의성과 과감성을 적극 발휘하도록 편성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군(IDF)의 특성을 <그림 1>의 조직편성도를 통해 상술하기로 한다.¹²⁾

총참모총장이 전군을 통할하여 지휘관리하고 지상군사령관을 겸임함으로써 최단시간내 모든 전투력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진격전' 수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핵심전력인 지상기동군단은 보병/공수군단, 기갑군단, 포병군단 및 공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방위사령부(Home Front Command)는

최고의 작전 및 행정기구이며, 3개 지역사령부(북부, 중부, 남부)를 설치한 것은 남북으로 뻗은 이스라엘의 지형, 각 지역마다 독특한 지형의 차이, 그리고 지역별로 상대할 적이 상이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반 참모부는 기획처, 작전부, 교리훈련부, 예산경리부, 연구개발부, 나할, 전자통신단, 민사조정관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인력부는 부관, 헌병, 교육단, 여군단, 군사대학, 군종, 법무, 의무, 군사재판 등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군수기술부는 병기단과 군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상비군은 소규모, 기간요원(cadre)으로 편성되어 있고, 동원예비군이 주역인 특수한 동원체제를 완성시켰다. 상비(정규)군은 예비군이 동원될 때까지 적의 공세를 억제하고 그 기세를 완충시키며, 예비군의 소집, 동원, 편성, 훈련, 나할부대 유지 등을 담당하며, 평시에는 대테러임무를 수행한다. 주력이 동원예비군이기에 때문에 동원 소요기간(24~72시간)을 고려, '조기경보'를 매우 중요시하고, '진격전'교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보력', '공군력' 및 '기동군단'을 집중적으로 조직화했다.

여섯째, 이스라엘은 초대 수상 벤구리온의 전략지

침에 따라 아랍과의 양적 열세를 '질적 우세'로 상쇄 시킨다는 개념으로 '인력'과 '장비'를 철저히 정예화 하여 '신전격전'교리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뒷받 쳤다. 이스라엘은 '짧은 군대'를 요구하고, 1인당 100명의 전투기량을 연마할 것을 꾸준히 강조하였 다. 30대 초반에서 여단장직을, 40대 초반에는 지역 사령관 직무를 수행하고, 참모부서는 30대 중반의 장교들이 담당하였다. 그리고 시민군이 주역인 전투 부대를 이끌고 '전격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 지휘관이 전투에 서서 지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장교의 희생율이 매우 높다. 6월전쟁에서는 전체 희생자의 20%, 10월전쟁에서는 24%나 되었다. 이와 같이 군대가 젊기 때문에 전격 전에서 요구되는 저돌적인 과감성과 창의성 발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스라엘 군은 참모총장의 단일 지휘하에 군의 모든 작전요소가 통합적으로 기획 및 지휘되고 있으나, 하위 부대장에게 실전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 하여 전투간 창의성과 융통성을 충분히 보장해 주고 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하급 지휘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할 수 있도록 평시에 교육훈련을 통해서 그 능력을 축적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장비면에서도 안보독트린과 군사전략 개념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고도 첨단기술의 질적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켰다. 특히, ① 전략적 취약점(짧은 중심, 협소한 국토 등)과 예 비군 동원 소요시간을 고려한 조기경보와 진장감시 수단, ② 이동표적을 신속히 타격, 파괴시킬 수 있는 고도 정밀시스템, ③ 전략적 장거리 타격무기, ④ 미사일 방호체계, ⑤ 전천후 작전 및 은폐보호능력, 그

리고 ⑥ 고도의 훈련체계 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필수 전력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자체의 힘에 의해 개발, 획득하는 전략 을 채택하였다. 이 연구개발 개념·방법은 군이 요구하는 전력화 시기를 단기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약점이 있으나, 군의 근본 전투력을 창조함에 있어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판단되었다. 이스라엘은 플랫폼(platforms: 전차, 전투기, 항공기 등)은 외국에서 구입할지라도, 이를 자 국의 작진환경에 적합하게 개조 또는 개량(upgrade) 하는 방법은 자체기술로 발전시켜 왔다.

이와 같은 핵심 기술 위주의 무기·장비 획득전략 에 힘입어 이스라엘은 오늘날 세계적 수준의 선진 군사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고, 주요 방산제품의 수출 국이 되었다. 이런 사실은 작은 국가라 할지라도 목표와 의지가 확고하면, 혁신적 기술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특히 정찰위성, 무인 비행체(UAV/RPV), 레이더, 통신 및 CI, 전자 및 컴퓨터 장비, 사통장비, 정밀 유도무기 등 매우 중요한 분야에 있어서 세계 정상 수준의 기 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런 무기·장비는 <표3>에 서와 같이 주변 아랍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어도 한 세대, 한 차원이 높은 최첨단 기술집약형이다.

- 핵탄두 : 핵 개발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으나, 세계의 정보통은 약 100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탄도미사일 Jericho-I/II : 10억불을 투자하여 개발, 실용화, Jerico-I(500km), Jerico-II(1500km)
- 군사첩보위성 OFEQ-3 : 1995년 4월 5일 발사 성공, 255kg(payload: 36kg), 수명 3년, 바그다드의 자동차 번호판도 식별 가능한 수준

<표3> 이스라엘의 주요 무기·장비 시스템 비교¹³⁾

구분	이스라엘 시스템	아랍 시스템
전략무기	○ 핵탄두 : 100기 보유 추정 ○ 투발수단 : Jericho I SSM (500km) Jericho II (2,800km)	○ SCUD-B/C
정보·전자	○ OFEQ(첩보위성) ○ PHALCON(공중조기경보체계), E-2C ○ UAV(scout, pioneer, seacher, firebee, samson, delilah) ○ HARPY(대공제압 RPV), EW/ECM/ECCM	○ E-2C ○ Teledyne-Ryan sky eye
정밀 유도무기	○ SHAFRIR(AAM) ○ PYTHON-3/4(AAM) ○ POPEYE (ASM) ○ BARAK-I (SAM) ○ GABRIEL (SSM)	○ styx ○ Harpoon ○ AIM-7/9
TMD	○ ARROW 개발, PATRIOT 배치	○ SA-7/9, Hawk
기동타격	○ F-16, F-15 ○ kfir, LAVI(비용관계로 생산 중단) ○ Merkava- I / II / III ○ Saar (미사일함)	○ F-16, Mirage ○ T-62, M ₁ A ₁ ○ Romandan, Hainan

- 조기경보통제기 Phalcon : 보잉707에 이스라엘제 첨단 전자광학센서 등을 결합
- 무인비행체 UAV(Delilah) : 적 레이더 탐지(방공 체계) 및 사격통제, 지상/공중발사 가능
- 원격조정비행체 RPV(harpy) : 공격시 loitering 및 미사일 기능(방공기지 위장, 회피 및 재공격)
- 공대공미사일 Python-III/IV : head-on요격, 근접 전투시 high-G 기동 가능, 유효 전투거리 15km
- 공대지미사일 Popeye : 전자광학적 스마트미사일 (명중률: 94% 이상)
- 함대공미사일 Barak-1 : 대함 미사일 방어(ship point defense), 수직 발사 미사일로서 다양한 경로로 진입하는 공격 미사일을 요격
- 함대함 미사일 Gabriel : 다양한 경로로 진입하는 공격 미사일을 요격
- 진역미사일 방호체계 ARROW : 1994년 6월 ARROW-I 시험발사 성공, ARROW-II 계속 연

- 구중. 1999년말 이전에 1개 포대 시험운영 예정. 광역미사일 방어 가능, 10~12개 표적 동시 교전 능력 보유, 미국이 80%의 예산 지원
- 전폭기 F-15 I : 1994년 도입 결정. 전천후 작전, 작전반경의 확대(1000miles) 및 타격무장도 증대
- 전투기 Kfir : 프랑스가 아랍국가들을 인식하여 1967년 중동전시 이스라엘이 자국 무기를 사용하였다는 구실로 대이스라엘 무기 금수조치를 단행하자 Kfir 자체 개발, 생산 결정(Kfir 전폭기, Kfir TC2 훈련기, Kfir C7 전폭기 등)
- 전투기 LAVI : F-16과 대등 또는 보다 우수한 전투기. 1986년 12월 원형 모델 제작, 시험비행. 많은 투자(약 20억불)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추가 비용으로 인해 중단 조치
- 전자 MerKava-III : 방호력에 최우선. 엔진조차 진차 진면에 배치(특수 장갑차), 최첨단 사격통제 및 기동력 발휘, 대함기 미사일도 탑재

· 전투함 Saar : 프랑스와 공동으로 개발·생산. 이 경험을 배경으로 Saar(Reshif급) 자체 생산

이스라엘은 오늘날 주변 아랍국가들에 비해 기술적·질적 측면에서 절대 우위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아랍국가들이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강화하고 있다. 걸프전시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다국적군체제를 이완 내지 붕괴시키기 위해 텔아비브에 스쿠드(SCUD)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였을 때, 그 곳 시민들은 크게 동요하여 도시 이탈자가 급증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종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협으로서 새로운 대응방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미사일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연대하여 ARROW 미사일 요격체계를 개발, 시험에 성공하였다. 한 때 점방어용으로 초 고속포(hypervelocity gun)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이와 관

련된 전자열상발사체(electro-thermal launcher)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무인 항공기 탑재 레이저나 전자열상화학포(electro-thermal chemical guns)도 고려되었다.¹⁴⁾

이스라엘은 오늘날 정찰위성과 C⁴I 및 정밀유도무기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소형 군사혁신'(mini-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¹⁵⁾ 이스라엘이 오늘날 미국이 세계 최선두의 위치에서 개척하고 있는 군사혁신체계(ISR-C⁴I-PGM forces)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Ⅲ. 이스라엘군의 주요 시사점들

이스라엘은 <표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

<표4> 이스라엘과 한국의 유사성¹⁶⁾

구분	비교 요소	이 스 라 엘	한 국
유사점	①지정학적 조건	○아랍국가들로 에워싸인 '작은섬' ○핍박과 수난의 역사 경험	○세계 최강의 4개 세력 접합점 ○외침과 수난으로 점철
	②민족	○유태인(대부분, 80%)	○한민족(전부)
	③자원	○부존자원 미약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 : 과학적·창조적 두뇌 보유(다수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	○부존자원 미약 ○풍부하고 근면한 인적 자원 : 고학력, 우수한 두뇌
	④건국/건군	○1948년	○1948년
	⑤전쟁/분쟁	○6차에 걸친 대아랍 전쟁 수행 ○평화협상 진행중	○동족간의 6.25전쟁 수행 ○휴전상태, 4자회담 논의중

※ 이스라엘 전략무기, 정보력, 기갑력, 항공력 : 한국보다 한 차원 높은 진력구조

<표5> 한국과 이스라엘의 국력 비교¹⁷⁾

구 분	인구(만명)	국토(만km)	GDP(억불)	군사비(억불)	병력(만명)
① 한국	4,520	10	4,220	144	66(현), 450(예)
② 이스라엘	572	2	780	72(+18)	17.5(현), 43.0(예)
① / ②	7.9	5.0	5.4	2.0(1.6)	3.8(현), 10.5(예)

국과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다같이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 지금 미국이 2개의 주요 전구급전쟁(Major Theater War) 예상지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 놓여 있는 중동지역과 한국이 위치한 극동지역이다. 양국은 공히 꺾박과 수난으로 점철된 어두운 역사의 터널을 뚫고 1948년에 건국되었다. 두 나라는 주변국가들에 비해 인구, 영토 등 국력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고, 부존자원도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다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큰 전쟁을 치렀고, 전쟁의 와중에서 건군, 확군 및 강군이 되었다. 두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고, 세계가 칭찬하는 경이적인 중급국가로 성장하는 기적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국보다 훨씬 작은 나라이다. 1995년을 기준으로 하여 양국의 국력을 비교해 보면 <표5>에서와 같이 한국은 이스라엘보다 인구 8배, 국토 5배, 그리고 GDP는 5.4배나 큰 상대적인 대국이다. 군사비도 GDP대비 비중은 한국이 이스라엘의 1/3수준이지만(한국 3.4%, 이스라엘 9.2%), 군사비의 규모는 한국이 이스라엘의 2배(미국의 군사지원 가산시는 1.6배)나 된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국력은 물론 군사비 규모도 한국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보

<표6> 한국과 이스라엘의 전력 비교¹⁸⁾

주요전력요소	①한 국	②이스라엘	① / ②
① 전략무기	○ 미국 의존 (핵우산) ○ NHK(12)	○ 핵탄두(100) ○ Jericho-I ○ Jericho-II ○ LANCE(20)	이스라엘 단연 우월
② 지상전력	○ 전차 2,050 ○ APC 2,460 ○ 자주포 1,000 ○ 전인포 3,500 ○ MRL 156	4,300 5,900 1,150 400 100+	0.48 0.42 0.86 8.75 1.56
③ 항공전력	○ 조기경보/통제 미군 의존 ○ 전투기 461	Phalcon, 4 E-2C 6 UAV/RPV 699(비축:250)	이스라엘 우월 0.66(비축포함: 0.4)
④ 해양전력	○ 수상함 202 ○ 잠수함 4	55 2	3.67 2

유하고 있는 전력수준은 주변 아랍국가들의 군사력(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의 군사력 합계)보다 우세함은 물론, <표6>에서와 같이 한국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스라엘은 지난 50년간 '자주국방'의 정신으로 군사력을 꾸준히 발전시켜서 오늘날 전세계에서 가장 작지만 당찬 정예화군·기술군·과학군을 창조했다. 한국군도 지난 50년간 '자주국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끝에 외형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큰 군대가 되었다. 그러나, 양국이 지난 50년간 노력하여 만들어낸 현재의 최종 산출물, 즉 전력수준과 군사태세는 양국이 지닌 저마다의 불가피한 특수사정이 있었지만 결과만을 놓고 볼 때는 앞의 <표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군이 우리 군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여지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다가오는 21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서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군사혁신'(RMA)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작은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비교우위의 군사력과 군사태세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내야 한

다. 이스라엘이 비교적 적은 자원으로 고도의 정예 기술군을 만들고, 아랍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의 신화를 창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곧 우리가 군을 개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참고해야될 주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를 앞의 II장에서 분석한 이스라엘군의 특징과 우수성에서 이미 밝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표7>과 같이 양국간의 상호 차이점을 대비해서 분석하면 그 이유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첫째, 이스라엘은 민·군 동체의 방위외식이 체질화되어 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병역기피란 상상도 할 수 없다. 더욱이 국방에 대한 지도자의 솔선수범은 당연시된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는 의무가 따른다"(Noblesse Oblige)는 사회적 윤리 및 가치가 완전히 살아 있다. 젊은 지휘관은 부대의 최선두에 위치하여 생명을 걸고 모범을 보인다. 이에 비해 우리사회는 어떠한가? 군을 위해 세금도 내고 귀중한 아들마저 군에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

<표7> 한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체제 비교¹⁹⁾

비교요소	이스라엘	한국
①방위외식/의지	○ 투철한 자주국방 의지 견지 ○ 시민군 의식(병역외부 사회자출의 필수 관문) ○ 군사비: GDP의 10% 수준	○ 대미의존 내면화, 자주국방의식 미흡 ○ 지도층의 안보의무 부족 ○ 군사비: GDP의 3% 수준
②방위체제	○ 철저한 자주적 방위체제 유지 ○ 미국과 대등한 안보협력 유지	○ 한·미연합방위체제 유지 ○ 전략 차원: 대미 의존
③군구조/지휘체계	○ 통합군체계 ○ 지상군, 해군, 공군, 정보	○ 합동군체계(3군 병립) ○ 육군, 해군, 공군, 해병
④동원체계	○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동원체계(시민군) 발전	○ 수적, 행정관리차원의 동원시스템 유지
⑤군사전략	○ 신 전격전 교리 ○ 독자적 선세 기습작전	○ 수세·공세의 반격작전 ○ 한·미 연합작전
⑥무기체계	○ 고유인 정찰·타격체계 발전: (정찰위성/UAV/Phalcon)-(F-15/16/Merkava/PGM)	○ 단거리 타격체계 위주 발전 ○ 기술적 정보/F-16/한국형 전차
⑦방산기술	○ 플랫폼: 해외구입/노획, 부품/구성품: 국산 ○ 핵심기술 개발 위주	○ 플랫폼 위주, 조립생산 ○ 체계개발 위주

대한 사회적 위상이 미약하고, 사회 고위층의 병역 미필문제가 언론에 자주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이스라엘 군이 오늘날 세계 정상급 군대가 된 것은 창군 초기부터 '자주국방태세'를 일관성있게 실천해 온데 기인한다. 초대 수상 벤구리온의 전략 지침에 따라 이스라엘은 자체의 힘(군사력)만을 신뢰하고, 그 힘에 의존해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생존을 지켜왔다. 이스라엘은 매우 작은 나라가 '자주국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교리, 조직편성, 무기체계, 방산구조 등 모든 면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의 개념이 철저히 반영된 '독창적'인 군대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어떻게 비유될 수 있을까? 우리 군은 창군 초기부터 미군에 의존하여 발전해 왔고, 울곡계획을 추진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대미 의존성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군사제도 및 체제, 그리고 무기시스템 등도 미국의 것을 지나치게 모방, 답습하게 되었고, 우리 군의 '창의성'도 미국의 것에 고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셋째, 이스라엘은 자원 소국이란 약점을 만회하기 위하여 군사력의 건설 및 유지에 있어서 철저히 임무와 성과를 지향하여 노력했고, 그 결과 상대보다 비교우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 군은 일체의 형식과 허세를 제거하고 '실질'을 숭상하였다.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는 보기 드물게 통합군 지휘체제를 채택하였고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시민군'동원체제를 창출하였다. 군대의 규모는 비록 작지만 유사시에는 1인의 참모총장 지휘하에 시민 모두가 A급 전투원이 되어 일사불란한 전투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군 최고의 지휘관인 참모총장의 계급이 '중장'이지만 전력의 통합성과를

극대화시키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군별 장벽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지연, 자원의 낭비, 노력의 소모 등은 애초부터 그 싹이 제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 군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평가해야 될까? 이스라엘과 유사한 지정학적 위치의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의 군대와 비슷한 군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계급구조는 '인프레'되어 있으며 동원체제도 숫자만 행정관리하는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닌가? 국방비용과 자원을 보다 적게 들이면서도 전투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체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성과 조직의 이기주의로 인해 이러한 방법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인가?

넷째, 이스라엘은 군사력의 건설, 유지 및 운용간에 상호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 자국의 실정을 철저히 반영하여 안보개념-군사교리/군사전략-군 구조/지휘체계-무기체계/군사기술-교육훈련-방산구조 및 군수지원에 이르는 일련의 기획·계획·집행 및 운용이 매우 논리적이며 체계적이다. ① 이스라엘군의 행동의 자유선택권 보장, ② 탁월한 조기경보체계 공세위주의 신 전격전 교리, ③ 통합군 지휘체제, ④ 시민군 급속 동원체제, ⑤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탁월한 정보력·항공력·기갑력과 역지력, ⑥ 핵심기술 위주의 방산체계, ⑦ 국민 교육도장으로서의 실전훈련 등 그 어느 곳에서도 목적과 수단간의 허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런 연유로 인해 이스라엘 군은 매우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당찬 군대가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 군대의 현실은 어떠한가? 미국으로부터 기획·계획·예산제도(PPBS)를 도입한 지 20여년이 지났건만 제도의 외

형적 모양만을 겨우 비슷하게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방기획관리 순기의 연결고리마다 논리적 비약과 단절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우선순위 결정과 일관성 유지가 미흡하고 그 결과 귀중한 국방재원이 낭비되고 유효 전투력의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은 아닌지?

다섯째,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생존전략'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전력'은 어떠한 재정적 난관과 외부적 방해가 있어도 이를 극복하고 필사적으로 확보해 왔다. 이스라엘은 창군 초기 매우 어려운 여건임에도 '핵심기술'에 도전하여 '무기체계의 이스라엘화'를 추구했으며, 상대측의 전략무기 획득 노력은 사전에 철저하게 봉쇄하면서(이라크의 오시락원전 기습 폭파), 자국의 '억제전력'은 온갖 지해와 무리수를 동원해서 확보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서 전략무기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이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어떠한가? 우리는 기술의 낙후성과 위협의 시급성을 강조하여 무기를 주로 미국으로부터 직수입하거나 기술을 도입해서 주로 플랫폼(platforms: 전차, 비행기 등)을 조립 생산하는데 치중해 온 것은 아닌가? 그 결과 기술의 낙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무기체계의 대외(미) 의존도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단 한가지의 핵심기술만이라도 선진 외국과 비슷하거나 우월한 것이 있다면 그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핵심기술에 도전하거나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대외적 '협상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인데……

여섯째, 이스라엘은 자국의 취약점(국토협소, 짧은 중심, 작은 인구 등)과 유리점(우수한 인적자원, 해외거주 유대인의 영향력 등)을 철저히 이해하고 상

대국(주변 아랍국가들)과 전혀 다른 '비대칭적'(asymmetric)인 창조적 방법에 의해 군사력을 발전시켰다. 자원이 적은 소국이 자원이 풍부한 대국과 꼭 같은 방법으로 군사력을 건설, 유지 및 운용한다면 그 전쟁의 승리는 당연히 대국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비대칭적 접근을 추구했다. 아랍측의 '양적 우세를 '질'적 우세로 능가시킨다는 개념을 채택했다. 즉 ① 매우 우수한 인적 자원의 창의성과 재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② 기술집약형의 전력을 창출하며, ③ 적지를 주전장으로 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전격전 교리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④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특히 미국 거주 유대인)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⑤ 전쟁의 최후 수단으로서 핵무장 선택권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 군은 어떤 독특한 '비책'으로 상대측에 대비해 왔다고 평가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군사력을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과거에는 북한의 전력 구성요소별로 수적으로 1대 1은 되어야 한다는 소위 '따라잡기식'의 전력발전 개념이 아니었던가? 또는 우리의 맹방인 미국을 모델로 생각하고 미군의 군사제도 및 체제를 모방하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가?

IV. 결 언

이스라엘은 걸프전쟁 후 안보개념과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탈냉전으로 아랍의 지원세력이었던 구소련이 붕괴된 반면 미국의 이스라엘 안보지원은 준동맹관계로 강화되었고 새로운 걸프지역 안보협력기구도 탄생되는 등 전략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이스라엘은 과거 6차례에 걸친 아랍과의 전쟁에서 연진

연승의 신화를 창출했으나, 아랍과의 분쟁은 여전히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이제는 강력한 '힘'(군사력)과 전략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외교력'에 의해 분쟁을 종식시키고자 평화협상을 벌리고 있다.

이와 같은 평화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군의 사회적 위상이 과거보다 저하되는 징후가 노정되고 있다. 군 입대가 더 이상 사회진출을 위한 관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군의 작은 실수와 희생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군사비의 과도한 부담에 대해 '총'보다 '버터'에 더 비중을 두기를 요구하는 여론이 증가되는 경향이다.²⁰⁾ 현재 이스라엘 군은 이러한 변화 및 추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단히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로운 전략환경이 새로운 군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 군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랍과의 평화협상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미국과의 안보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내면적으로는 더욱 정예화되고, 더욱 기술집약적이며, 더욱 정보집약형인 질적 군대를 추구해 나가게 될 것이다. 지난 걸프전을 교훈으로 삼아서 현재 미국이 개척하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 복합체계(A New System of Systems)의 개념을 응용하여 국지형의 '군사혁신'(RMA)를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우수한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보다 먼 거리를 정밀하게 감시하고, 보다 원거리의 전략적 표적들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한편, 상대측의 미사일 공격을 방호할 수 있는 하나의 국지형 복합 시스템을 구축, '스마트'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여 전쟁 억제력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도 적지 않다. 특히, 군사기술 수준이 훨씬 높고, 교포(특히 미국의 유대인)들의 지원능력이 강력하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력 및 군사태세 수준이 우리보다 우월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스라엘 군의 군사제도 및 체제, 군사조직, 군사교리, 기술정책 등이 우리 군보다 우수한 데 있다. 그리하여 양국이 꼭 같이 50여 년전에 창군되었지만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효 전투력 수준이 우리 군보다 우월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전략이 우리의 접근방식보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점이 우리 군이 개혁작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비용과 자원을 적게 소비하면서도 유효 전투력은 더욱 크게 생성 및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이 바로 우리 군 개혁의 '어떻게'에 대한 해답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인 동시에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의 군대보다는 우리보다 소국인 이스라엘의 군대로부터 참고해야 할 점이 더 많을 것 같다.

각 주

- 1) 김희상, 「중동전쟁」, 일신사, 1978, 1~10쪽; 시온주의(Zionism)는 선조의 땅인 '에레쯔 이스라엘'(Eretz Israel = The Land of Israel)에 유대민족국가를 창설하여 민족문화를 꽃피우자는 주의
- 2) '바젤계획'에서 밝힌 유대인의 결의 내용은, ① 유대인 농업·공업 노동자에 의한

- 팔레스타인 식민지화 촉진, ② 각국의 법률에 따라 지역적 또는 국제적인 적절한 기관에 의한 유대인 전체의 조직화와 결속 도모, ③ 유대인 민족감정 및 민족의식의 강화와 육성, ④ 필요에 따라 시온주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국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한 예비조치의 강구 등임.
- 3) 안보문제연구소(국방대학원), 「중급국가의 국방정책」, 안보총서 32, 1982.12, 391 ~ 392쪽
 - 4) 황동준, “이스라엘의 병역 및 군 인력정책”, 「주간국방논단」, 제606호, 한국국방연구원, 1995.10.30, 2, 7쪽; 전투부대 동원예비군은 42~44세까지, 후방부대 동원예비군은 51세까지 복무한다. 동원훈련기간은 전투부대는 연 25일, 후방부대는 연 1개월이며, 동원기간 중 현 직장에서 받고있는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 5) Efraim Inbar, "Contours of Israel's New Strategic Thinking",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III, No.1(Spring), 1996, pp.41 ~ 43
 - 6) Zeev Bonen, "The Israeli Defence Industry : Past and Future", *Israel's Strategic Thinking and Defence Industry*,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세미나, 1996.10. 8, 47~48쪽
 - 7) Efraim Inbar, op. cit., p. 44
 - 8) Bard E. O'Neill, "The Defense Policy of Israel", *Defense Policies of Nations : A Comparative Study*, edited by Douglas J. Murray & Paul R. Viotti,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p.385
 - 9) 김희상, 앞의책, 259~260쪽; 다얀은 “정신적 의지력에 의한 공격”을 강조했다. 참모총장 라빈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불도자”라는 개념을 창출했다. 적이 섬멸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다.
 - 10) *Jane's Intelligence Review*, "Inside Israel's Secret Organization", October) 독립적 1개 군의 위상으로서 대아랍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준 ‘비밀무기’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첩보위성(OPEQ)을 독자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대미 의존도를 격감시켰다. 중심정찰부대인 Sayeret Maktal, 국외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Mossad, 대간첩정보를 맡고 있는 Shin Bet, 그리고 군사과학기술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LEKEM이 핵심조직이다.
 - 11) 김희상, 앞의 책, 420쪽; 6일전쟁시 이스라엘 지휘관에게는 최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었다. 부대가 처해 있는 상황은 현장에 있는 그 부대의 지휘관이 가장 잘 안다. 그러면서도 참모총장의 단일 지휘하에 지휘권이 통일되어 있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힘과 노력이 집중되었다.
 - 12) 황동준, 「이스라엘 국방준비태세와 무기체계 획득정책」, 해외출장귀국보고서, 한국국방연구원, 1995.10, 10쪽과 Internet(<http://www.Israel-mfa.gov.il/df/organiz.html>)의 Organization of The IDF를 참고하여 정리
 - 13) 황동준, 앞의 귀국보고서, 30~38쪽과 *Military Balance* 1996/97(IISS) pp.134 ~ 136을 참고하여 정리
 - 14) 손영환, “이스라엘의 Arrow 미사일 방호체계”, 주간국방논단, 제657호, 한국국방연구원, 1996.11.25, 1~11쪽
 - 15) 권태영·노훈·정춘일·백용기, 「21세기 한국군의 군사혁신 비전과 방책」,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1997.12, 260~282쪽

- 16) 권태영 외, 앞의 보고서, 291쪽
- 17) Military Balance 1996/97, 1995년 기준 통계치, pp.134~135, pp.187~188을 참고하여 정리.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연간 30억불을 원조받고 있다. 이 중 약 18억불이 군원이다. SIPRI Yearbook 1992(pp.259~261)에 의한 82~91기간 중 군사비('88불변가)는 이스라엘이 527억불, 한국이 684억불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기간 중 미 군원이 연간 약 15억불 정도인 것으로 가정한다면 이스라엘의 군사비 누계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그리고 Military Balance에 나타난 92~97기간 중의 군사비는 경상가로 이스라엘이 약 420억불, 한국이 820억불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기간 중 미국의 군원(연간 18억불)을 가산할 경우 이스라엘의 군사비 누계는 약 520억불로 추산되었다.
- 18) 권태영 외, 앞의 보고서, 291쪽
- 19) 권태영 외, 앞의 보고서, 292쪽
- 20) Efraim Inbar, op. cit., p.54